

독후 활동지

헤밍웨이와 스노 화이트

루카 토르톨리니 글 알리체 바르베리니 그림 홍연미 옮김



이 책에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람은 《노인과 바다》라는 소설을 쓴 미국의 유명한 작가예요. 이 작가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래 글의 빈칸을 채워 보세요.



_____ 작가님은 아침에 글을 썼어요.

이때 누가 방해하는 건 아주 싫어했지요.

작가님이 글을 쓰는 방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우리 집에서 나뿐이었어요.

나는 작가님 책상이나 의자에 몸을 동그랗게 말고 누웠어요.

작가님이 기르게 된 고양이의 발가락 개수는 다른 고양이랑 달랐어요. 몇 개였을까요? 그림을 보고 세어 빈칸을 채워 보세요.

“이것 보세요. 이 녀석 발가락이 _____개예요.”

선장님이 말하자 작가님이 대답했어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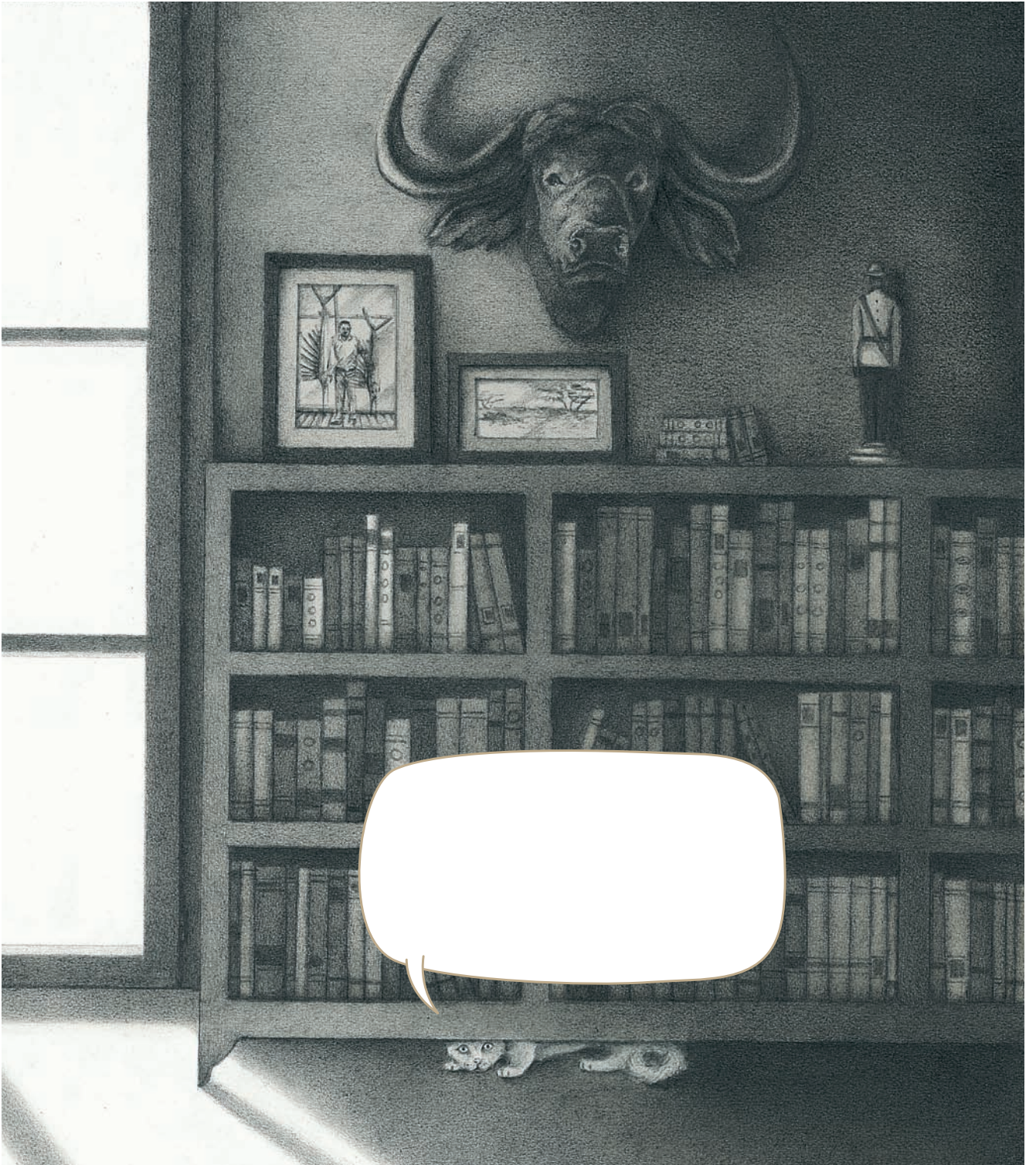
“아주 특이하네요. 행운의 상징이에요.”



작가님이 집에 오는 손님에게 이렇게 자랑하자 고양이는 화가 났어요. 왜 화가 났을지 책을 보거나 스스로 생각해서 말풍선을 채워 보세요. (고양이가 밧을 가리고 있는 게 힌트예요.)



작가님이 유럽으로 같이 여행을 가자고 했을 때, 고양이는 어디론가 숨어서 하루 종일 있었어요.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? 상상해서 말풍선을 채워 보세요.



작가님이 유럽 여행을 하는 동안 두고 간 고양이에게 편지를 보냈어요. 편지의 맨 처음을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? 빈칸을 채워 보세요.



나는 프랑스 파리에 와 있다.
이곳에는 유명한 센강이라는 곳이 있어.
벤치에 앉아 그 강을 오래 구경했다.
같이 보내는 그림은 에펠 탑이라는 거야.
어서 돌아가서 너에게 여행 이야기를 다 들려주고 싶구나.

감정 공감하기

책의 맨 마지막에서 작가님의 고양이는 오랫동안 못 봤던 자기 엄마를 만나게 되었어요. 둘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요? 모두 동그라미 해 보세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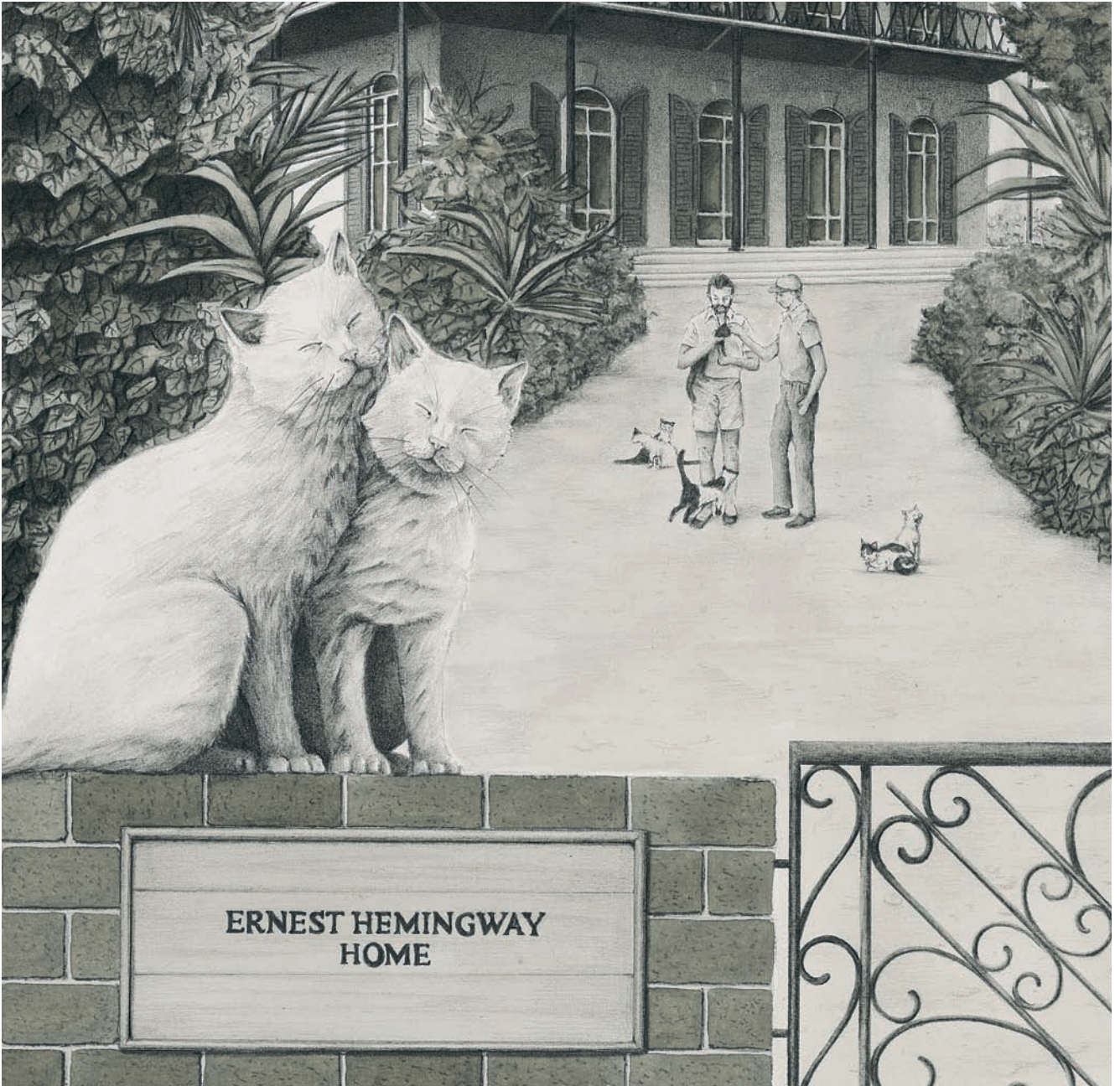
사랑

슬픔

화

기쁨

외로움





세계적인 작가 어니스트 헤밍웨이와 그가 사랑한 고양이 스노 화이트 이야기

방해받는 것을 싫어하며 늘 조용했던
작가 헤밍웨이의 마음을 열게 한
여섯 발가락의 반려 고양이 스노 화이트.
작가의 뜰과 집필실, 자주 찾던 식당과 바닷가까지
둘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일상이 펼쳐집니다.